

2008년 7월25일 말씀

섭리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무를, 구상을 해서 많이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려놓으면 박물관에다 진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천명이상 온다고 합니다.

내가 지촌제때 낸 그림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눈에 띄어서 지금도 유럽에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 쪽에서는 뜨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선 나를 잘 모르지만 유럽 쪽에선 알아줍니다. 아시아 그림은 잘 안 알아주는데 내 그림은 알아줍니다. 몸부림치며 그린 것으로 아주 깊은 뜻이 숨어있었던 그림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유럽 쪽 사람들이 알아준 것입니다. 계속 팔라고 하는데 나는 안팔 것입니다.

컴퓨터로도 그림을 그리지만 그래도 손으로 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꼼꼼하게 그린 것보다는 추상화같이 짹짹 그린 것을 요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보름 동안 생각해서 딱 영감이 잡히는 걸 그런 걸 그려야 합니다. 국전 작가였던 (故)표 승현 장로님 이 계셨는데 내가 코치해서 그림이 떴습니다. 내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림이 형이하학적이니 형이상학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내가 가르쳐주었습니다. 내가 코치하면 다릅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행사를 할 때는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해나가야 합니다. 행사 잘 못하면 전체가 실망하니까 피곤해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직하고 완전히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원래 행사는 미리 연습하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렇게 못할지라도 조직적으로 착착 일을 진행해주고 그렇게 해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행사는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섭리 안 나오는 회원들은 왜 그런가 하면 피곤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고 아파서 못 나오고 서로 부딪쳐서 안 나오고 그런 것이니 이런 사람들 계속 챙겨야 합니다.

명단 적어서 관리하던 사람이 못 챙기면 다른 사람이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나나 봐. 난 여기까지 택했나보다.’ 하게 됩니다. 신앙 이란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하나의 사회생활과 같습니다.

내가 9년 동안 외국 안 나갔다 왔으면 해외 애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외국 애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몇 명씩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 여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다 온 것입니다. 내년되고 내 후년 되면 더 달라질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 10년 후 쯤에는 몇 만 명씩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경시켜야지 딴 나라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신입생들, 새로운 사람들 계속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불이 붙습니다.

관리 잘 하면서 신앙 넣어주고 말씀도 넣어주고 해야 합니다. 분위기 타면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신앙 딱 넣어주고 근본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구도 축구의 근본을 넣어줘야 어디가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림도 근본을 심어줘야 그림을 그리다가 딴 것을 안 합니다. 근본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근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술제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